

최근 중국 경제제재 파급효과 추정

1. 중국 경제제재 현황	1
2. 對중국 거래 현황	2
3. 중국 경제제재 피해액 추정	5
4. 중국 수출기업 설문 결과	8

확 인	산업경제팀장 이재우 jaewoolee@koreaexim.go.kr (3779-6685)
작 성	산업경제팀 선임연구원 김윤지 yzkim@koreaexim.go.kr (3779-6677)
	지역연구팀 조사역 조재동 jjd8948@koreaexim.go.kr (3779-5716)

< 요약 >

□ 중국 관련 거래액 총 1,404.8억 달러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 거래액은 상품 수출액 1,244억 달러, 콘텐츠 수출액 17억 달러, 관광수입 80억 달러, 중국 투자법인의 투자소득 63.8억 달러 포함 총 1,404.8억 달러

<우리나라 중국 관련 거래액>

단위 : 억달러

	수출액		관광수입	중국투자법인 투자소득	합계
	상품	콘텐츠			
총금액	4,954	63.1	170.9	-	-
중국 비율	25.1%	27%	46.8%	-	-
중국관련금액	1,244	17	80.0	63.8	1,404.8

주: 수출액, 관광수입은 2016년 기준, 중국투자법인 국내수익분은 2015년 기준

□ 중국 경제제재 피해액 7.3~16.2조원 추정

- (시나리오 1) 수출 3%, 관광 30% 감소시 7.3조원 손실
 - 상품 수출 4조3천억원, 콘텐츠 수출 6백억원, 중국투자법인 투자소득 2천억원 및 관광수입 2조8천억원 감소
- (시나리오 2) 수출 7%, 관광 60% 감소시 16.2조원 손실
 - 상품 수출 10조원, 콘텐츠 수출 1,300억원, 중국투자법인 투자소득 5천억원 및 관광수입 5조5천억원 감소

<중국 관련 거래액 감소 추정>

		수출액		관광수입	중국투자법인 투자소득	합계
		상품	콘텐츠			
수출3%,	(억달러)	37.3	0.5	24.0	1.9	63.7
관광30% 감소	(조원)	4.3	0.06	2.8	0.2	7.3
수출7%,	(억달러)	87.1	1.2	48.0	4.5	140.7
관광60% 감소	(조원)	10.0	0.13	5.5	0.5	16.2

주: 2011~12년 센카쿠 분쟁시 일본의 대중수출액 7%, 관광객 28.1% 감소 사례 반영 추정

1. 중국 경제제재 현황

□ 중국 정부, 사드배치 결정 이후 단계별 보복조치 진행 중

- 한·미 간 사드배치 결정('16. 7. 8) 이후 중국 정부는 언론매체를 통한 여론압박 등 '암묵적 제재'에서 '실질적 경제제재'로 보복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
- 사드배치 결정 발표 직후 중국 외교부 및 공산당 기관지(환구시보, 인민일보 등)는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사드배치 중단을 촉구하였으나 경고성 발언에 그침.
- 그러나 사드 부지가 확정된 작년 말 이후에는 한국 드라마 방영 규제, 유커의 방한 제한 등 콘텐츠·관광 부문의 한한령(限韓令) 시행, 부지 제공을 한 롯데를 겨냥한 중국 내 롯데마트 영업정지 처분, 한국제품 불매운동 실시 등 실질적 경제제재 강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제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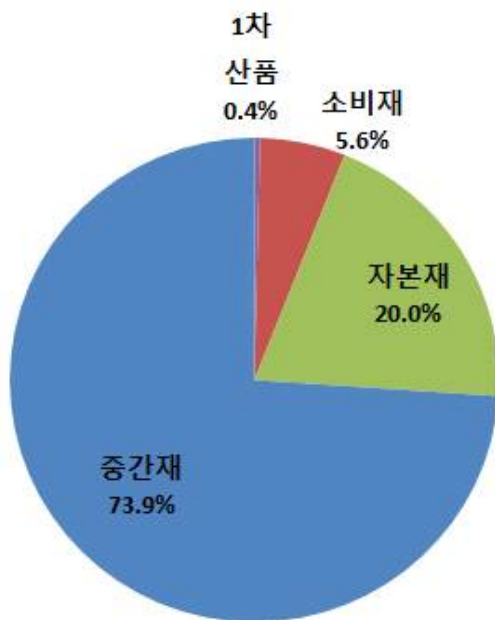
일 자	사드 배치 진행 상황	중국 제재 형태
'16. 1.22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 공개 권고	·경고성 발언
'16. 7. 8	경북 성주 내 사드배치 결정	·강경 어조 비판
'16. 9.30	국방부, 사드배치 부지 확정	·비자발급 절차 강화
'16.11.16	국방부-롯데, 남양주 군용지 및 성주골프장 교환 합의	·한국 드라마 방영 제한 ·한국 연예인 출연 규제 ·병원 등 관급공사 입찰배제 ·전세기 운항 불허
'17.2.27	롯데, 사드 부지 제공 결정	·한국 여행상품 전면 철폐 ·세무조사, 소방점검 강화 ·롯데마트 영업정지 확산 ·한국제품 불매운동 실시

2. 對중국 거래 현황

□ 對중국 수출 현황

- (상품)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액 4,954억 달러 가운데 對중국 수출액은 1,244억 달러로 25.1% 차지
- 對중국 수출 재화별 비중은 중간재 73.9%, 자본재 20.0%, 소비재 5.6%, 1차 상품 0.4%로 중간재·자본재 중심 수출 구조

<품목·재화별 對중국 수출 금액 및 비중 (2016년 기준)>



품목	금액 (억달러)	비율 (%)	증감률 (%)
농림수산물	13.0	1.0	11.3
광산물	48.7	3.9	1.9
화학공업제품	235.0	18.9	2.2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30.8	2.5	2.0
섬유류	21.2	1.7	-5.9
생활용품	14.1	1.1	-0.6
철강금속제품	63.7	5.1	-4.5
기계류	193.8	15.6	-8.8
전자전기제품	623.5	50.1	-15.2
잡제품	0.6	0.1	-7.3
합계	1,244.3	100	-9.3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시스템

- (콘텐츠)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액* 63.1억 달러 가운데 對중국 수출액은 27%인 17억 달러 추정**

* 콘텐츠 수출액(게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애니메이션 등)은 통관 기준으로 집계되지 않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별도 집계, 일부는 상품 수출액에 포함.

** 콘텐츠 對중국 수출 비중 : ('13) 21.3% → ('14) 26.2% → ('15) 27%^e

□ 중국인 관광객 및 관광수입 현황

- 2016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총 1,724만명, 관광수입은 170.9억 달러이며, 중국인 관광객수는 46.8%인 807만명, 관광수입은 80억 달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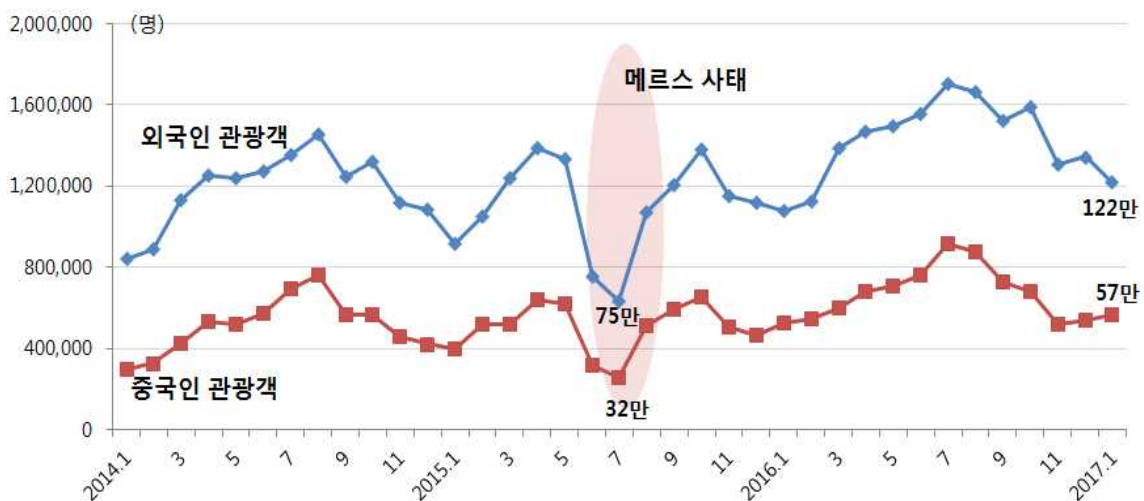
<외국인 관광객 및 관광수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1월
외국인 관광객 (만명)	1,218	1,420	1,323	1,724	122
중국인 관광객 (만명)	433	613	598	807	57
중국인 비율 (%)	35.5	43.1	45.2	46.8	46.3
총관광수입 (억달러)	145.3	177.1	151.0	170.9	12.1
중국인 관광수입 (억달러)	51.6	76.4	68.3	80.0	5.6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2017년 1월 중국인 관광객 비율은 전체 관광객 대비 46.3%로 전
년평균 대비 0.05%p 하락했으나, 일반적으로 겨울에 관광객 수
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뚜렷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

<외국인 및 중국 관광객 월별 방문 추이>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對중국 해외투자기업 매출액 및 수익

- 2015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누적 해외투자금액 3,090억 달러, 투자법인 62,579개 가운데 중국 투자액은 622억 달러(20.1%), 법인 수는 25,012개(40.0%)
- 투자잔액 100만 달러 이상 해외투자 법인* 수는 전체 6,045개, 현지매출액은 6,766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중국투자 법인 수는 2,032개(33.6%), 현지기업 매출액 2,136억 달러(31.6%), 현지기업의 중국내 매출액은 1,329억 달러
- * 당행이 집계하는 해외투자 경영분석 대상 법인 투자잔액 기준
- 2015년말 기준 중국 투자 법인의 투자순수익(=당기순익×한국투자지분율), 로열티, 대부이자 등 투자수익은 49.9억 달러, 국내 모기업 배당금은 13.9억 달러로 약 63.8억 달러의 투자소득 창출

<중국 해외투자 법인 매출액 및 수익>

단위 : 개, 억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중국 투자 법인수*		1,721	2,005	2,159	2,019	2,032
현지기업 매출액		1,654	1,965	2,052	2,412	2,136
중국내 매출액		976	1,144	1,412	1,579	1,329
투자 소득	투자수익	62.6	71.3	101.5	85.2	49.9
	배당금	15.4	21.1	23.0	29.6	13.9
	합계	78.0	92.4	124.5	114.8	63.8

*해외투자 경영분석 대상인 투자잔액 100만 달러 이상 법인 기준

□ (종합) 중국 관련 거래액 총 1,404.8억 달러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 국내 매출은 상품 수출액 1,244억 달러, 콘텐츠 수출액 17억 달러, 관광수입 80억 달러 포함 총 1,341억 달러, 중국 투자법인의 투자소득 63.8억 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1,404.8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중국 관련 거래액>

단위 : 억달러

	수출액		관광수입	중국투자법인 투자소득	합계
	상품	콘텐츠			
총금액	4,954	63.1	170.9	-	-
중국 비율	25.1%	27%	46.8%	-	-
중국관련금액	1,244	17	80.0	63.8	1,404.8

주: 수출액, 관광수입은 2016년 기준, 중국투자법인 국내수익분은 2015년 기준

3. 중국 경제제재 피해액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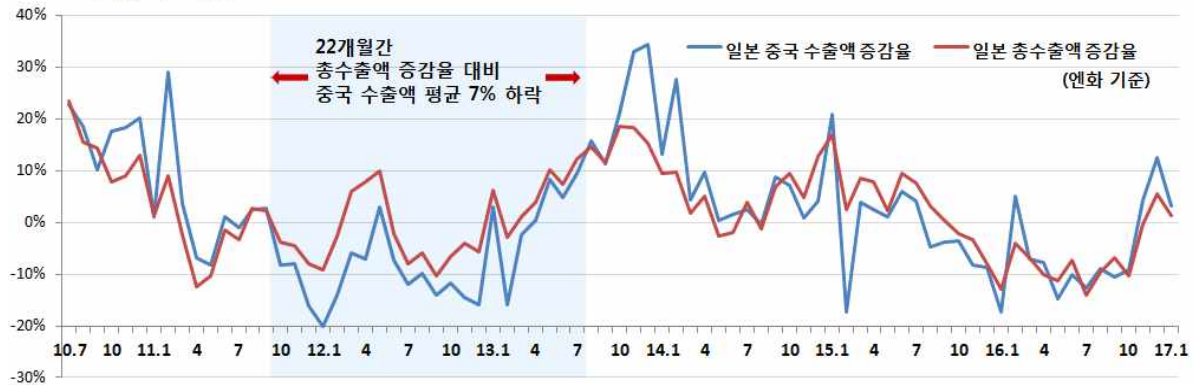
□ 추정 방식

- (수출·해투) 과거 중일간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의 반일 감정이 격화돼 중국이 일본에 경제 보복을 가했을 당시 일본의 대중국 수출 하락 비율을 근거로 추정
 - 2010년 9월 1차 분쟁(조업 중국 어부 체포) 뒤 중국내 반일감정 확대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 2011년 12월 2차 분쟁(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뒤 반일감정 최고조, 폭력시위 및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확산
- 일본의 對중국 수출 감소는 2011년 1차 분쟁 이후 나타나기 시작해 2012년 중국의 비관세 조치 이후 감소폭이 늘어나, 수출물량 기준 11개월간(평균 3%), 수출액 기준 22개월간(평균 7%)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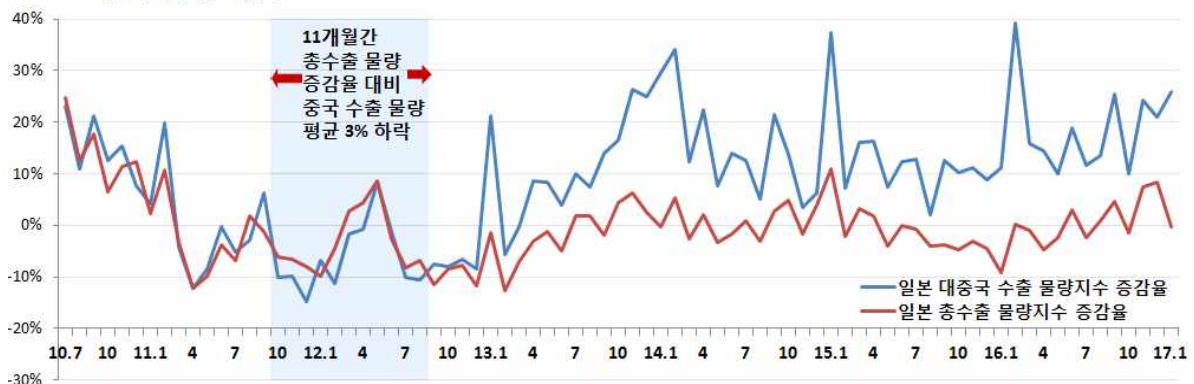
- 기간 중 엔화 강세 등의 효과 등이 함께 일어나 수출액 및 물량 감소폭에 차이 발생

<센카쿠 열도 분쟁시 일본 수출 증감율 추이>

<수출액 기준>



<수출 물량 기준>



자료: 일본 재무성,

주: 평균 하락률은 총수출 증감율보다 대중국 수출 증감율이 더 떨어지는 기간 동안 두 수치의 차이가 평균으로 집계

-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때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제재가 가시화될 경우 對중국 수출액 및 중국 투자기업의 현지 매출 감소에 의한 투자소득 감소를 예상할 수 있으며, 감소율은 3~7%, 영향 기간은 1~2년으로 추정 가능

- 그러나 반일·반한 정서에 영향받는 재화는 주로 소비재이며, 한국의 對중국 소비재 수출 비중이 일본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율은 일본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음.

* 對중국 소비재 수출 비중: 일본 20% 내외, 한국 5% 내외

- (관광)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가 단행되자 중국 정부는 일본 관광을 금지시켰고, 이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2012월 10월부터 11개월간 평균 28.1% 감소
- 이후 일본의 적극적 중국 관광객 유치 활동 및 엔저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은 다시 회복됨.

<방일 중국인 관광객수 추이>

단위: 명, %

	2012년		2013년		비고
	인원수	증가율	인원수	증가율	
1월	136,665	37.9	72,301	△47.1	
2월	81,966	△22.2	80,903	△1.3	
3월	129,302	107.0	102,265	△20.9	
4월	148,793	95.4	100,160	△32.7	
5월	112,152	91.4	81,571	△27.3	
6월	125,983	105.1	98,996	△21.4	
7월	204,270	134.9	139,905	△31.5	
8월	190,254	85.4	162,288	△14.7	
9월	121,673	8.2	156,201	28.4	'12.9.11,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10월	69,713	△34.3	121,335	74.0	
11월	51,993	△43.6	101,940	96.1	
12월	52,336	△34.3	96,700	84.8	'13.12.30, 달러당 엔화 최저

자료: 일본정부관광국(JNTO)

- 우리나라 방문 중국 관광객의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 56.7%, 단체여행 40.9%, 에어텔 2.4% 비율(2015년)로, 중국의 한국 단체여행 금지 등이 단행됨에 따라 업계는 중국인 관광객이 최대 60%까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일본 사례 및 업계 의견을 반영할 때 중국인 관광객 감소율은 센카쿠 분쟁시 방일 중국인 평균 감소율 30%에서 최대 60%까지 추정 가능

□ 중국 경제제재 피해액 7.3~16.2조원 추정

- (시나리오 1) 수출 및 해외투자 매출 3% 감소, 관광 30% 감소
 - 상품 수출 4조3천억원, 콘텐츠 수출 6백억원, 중국투자법인 투자소득 2천억원 및 관광수입 2조8천억원이 감소돼 총 7.3조원 손실 가능
- (시나리오 2) 수출 및 해외투자 매출 7% 감소, 관광 60% 감소
 - 상품 수출 10조원, 콘텐츠 수출 1,300억원, 중국투자법인 투자소득 5천억원 및 관광수입 5조5천억원이 감소돼 총 16.2조원 손실 가능

<중국 관련 거래액 감소 추정>

		수출액		관광수입	중국투자법인 투자소득	합계
		상품	콘텐츠			
수출3%, 관광30% 감소	(억달러)	37.3	0.5	24.0	1.9	63.7
	(조원)	4.3	0.06	2.8	0.2	7.3
수출7%, 관광60%감소	(억달러)	87.1	1.2	48.0	4.5	140.7
	(조원)	10.0	0.13	5.5	0.5	16.2

주: 달러당 1,150원 환율 적용

4. 중국 수출 기업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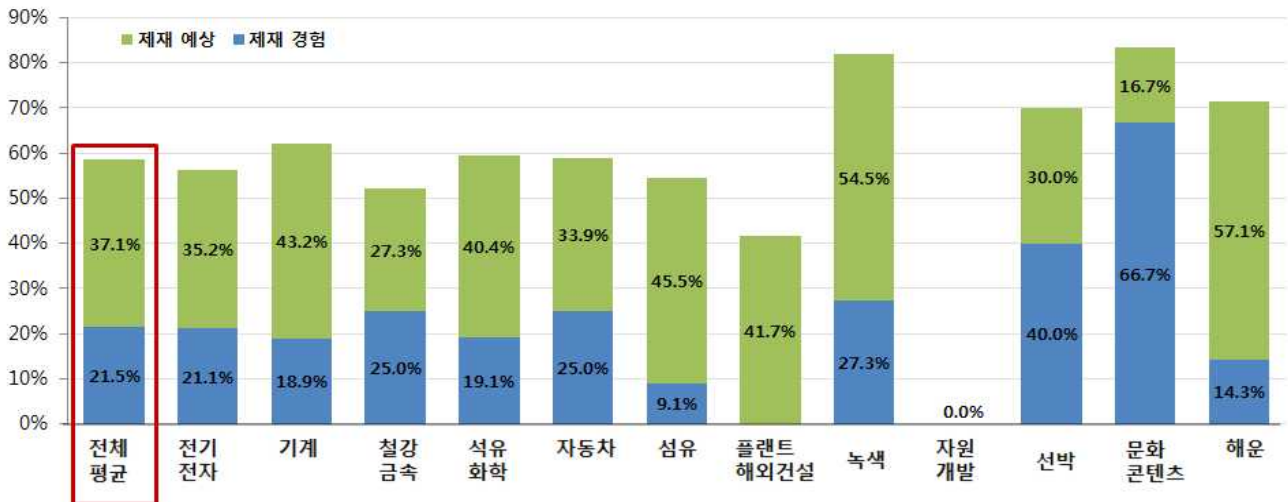
□ 현재 수출 활동 영향 21.5%, 향후 영향 예상 37.1%

- 수출 기업 설문* 결과 중국 수출기업 302개 기업 가운데 21.5%(65개)가 사드 배치로 중국 수출 활동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7.1%(112개)는 향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2017.3.6.~13 수출 기업 대상 설문 실시

- 현재 제재 경험 비율(21.5%)은 높지 않지만 향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37.1%)하는 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58.6% 기업들이 중국 제재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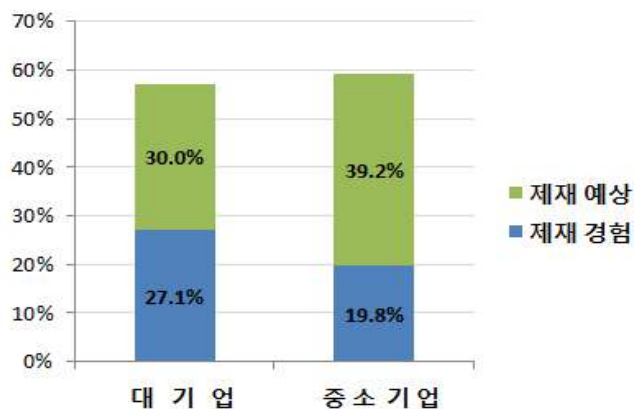
<중국 수출기업 산업별 제재 경험 및 예상 응답률>



주: 중국 수출 기업 302개 응답 중 비율

- 산업별로는 문화콘텐츠 기업 66.7%가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향후 영향 예상(16.7%) 포함시 문화콘텐츠 응답 기업의 83.4%가 제재 영향권에 있음을 나타냄.
- 선박(40.0%), 녹색(27.3%), 자동차(25.0%), 철강금속(25.0%) 기업 등도 전체 평균보다 제재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27.1%, 중소기업 19.8%가 제재 경험이 있다고 응답, 향후 제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39.2%)이 대기업(30.0%)보다 더 많이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중국 수출기업 규모별 제재 경험 및 예상 응답률>



주: 중국 수출 대기업 70개, 중소기업 232개 응답 중 비율